

## ‘남북 표준규격제정’ 계획 수립 추진

정부는 남북경협 및 교역확대에 대비, 남북한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규격 제정을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기업체로 구성된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축·운영해 북한의 국가표준 정보를 입수, 분석하고 남북한 표준규격 기관간 협력채널을 통해 ISO, IEC, ITU 등 국제표준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우리나라의 국가표준시스템(KS)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신산업 분야와 남북경협 확대 등 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 남북경협 및 교역확대를 위한 남북한 표준통일 준비작업과 생명공학 전자상거래 환경산업 등 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국가표준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는 내용의 5년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남북한이 서로 다른 표준제도의 운영이 통일비용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나 북

한의 표준규격에 대한 연구 및 남북한 표준통일 전략이 현재로서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남한의 표준규격제도는 일본 및 미국의 영향을 받고 있으나 북한은 구소련 및 중국제도와 유사하다.

또한 산업고도화 추세에 맞춰 기초 인프라인 측정기술을 현재 선진국의 50~70% 수준에서 5년 내 70~90%까지 높이고 국제표준 규격에 맞도록 국가표준을 유럽연합(EU)의 8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산자부는 아울러 선진국의 기술장벽을 넘기 위해 EU 일본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늘리기로 했다.

한편 산자부는 4월 26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업계, 학계, 연구기관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표준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표준기본계획을 발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 산업자원부,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요령안” 제정

산업자원부는 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유사 지원사업을 통합 운용하고 수출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원요령안”을 제정했다. 지원

요령안은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지정절차와 지정기준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돼 있다. 원칙적으로 매반기별 지원대상 업체를 지정하며 지정한다. 현재 각 수출지원기관에서 중소기업에 대해

우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은 지원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계속 지원되지만 이번에 확대·강화된 지원 내용은 새로 지정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업체에 대한 각 기관별 주요 우선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기청**

- 해외유명규격인증획득사업 대상자 선정시 5% 가점
- 외국인산업연수생 대상업체로 우선 지정
-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중 일부(2000년 300억원 수준)를 우선지원
- 수출촉진단파견 대상업체 선정시 획득점수의 30% 가산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

- 센터가 추진하는 L/C보유 수출유망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심사시 매출실적이 없더라도 L/C 금액의 80%까지 보증

**▲ 수출보험공사**

- 신용적색거래국에 L/C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부보 및 보증·보험료 및 보증료를 기존 중소기업할인률(15%)외에 20% 추가 할인

**▲ 수출입은행**

- 수출입관련 자금 대출을 위한 업체평가시 수

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비재무항목으로 10% 가산점 부여

**▲ KOTRA**

- KOTRA주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시 우선선정 및 일부 비용지원
- Silkroad 및 KOBO에 전자카다로그 게재 지원
- KOTRA Net을 통한 KOTRA 수집정보 이용
- 바이어 및 구매단 방한시 상담 우선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체 선정 평가시 5% 가점
- L/C 담보용으로 경영안정자금중 300억원을 우선 융자 지원
- 수출상품홍보지 게재비용의 50% 지원(Korea Buyers Guide지 및 Tradenews.net)
- 수출 컨설팅을 위한 수출자문단 3일 무료 지원(3일초과시 60% 지원)

**▲ 한국무역협회**

- 해외시장개척기금 융자대상업체 평가시 10% 가점
- 해외바이어검색 등을 위한 CD검색시 회원사와 동일한 수준(30% 할인) 적용

**▲ 기타 지원기관의 지원**

- 중소기업은행, 한미은행, 디자인진흥원 등의 지원 가능한 사항의 지원

**▲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
| 현장<br>실태<br>조사<br>평가 | 수출실적평가       | 10 | 100만불이상(2), 100~50만불이상(6), 30~50만불(8), 10만불이하(10)                    |
|                      | 제품의 수출적합성    | 10 | 매우높음(10), 높음(8), 양호(6), 보통(4), 낮음(2)<br>* 첨단업종등 수출과의 연계 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 |
|                      | 품질, 가격경쟁력    | 10 | 매우높음(10), 높음(8), 양호(6), 보통(4), 낮음(2)<br>* 국제규격획득시는 매우 높음으로 평가        |
|                      | 지정시의 수출증대가능성 | 10 | 매우높음(10), 높음(8), 양호(6), 보통(4), 낮음(2)                                 |

|                |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
| 현장<br>실태<br>조사 | 기술<br>성  | 전반적인 기술수준      | 10  | 매우높음(10), 높음(8), 양호(6), 보통(4), 낮음(2)   |
|                |          | 연구개발 인력        | 5   | 5명이상 보유(5), 3~5명(3), 1~3명(2), 없음(0)  |
|                |          | 총매출액중 연구개발비 비중 | 5   | 5%이상(5), 3~5%(4), 1~3%(3), 1%이하(2)   |
|                |          | 산업재산권          | 5   | 특허권, ISO규격획득, 기타 지적재산권<br>* 보유1건당 2점씩 최대 5점 부여   |
|                |          | 기술개발 프로젝트참여여부  | 5   | 중앙기관의 사업참여(5), 지역단위 사업참여(3), 참여않음(2)   |
| 평가             | 경영<br>능력 | 수출이행계획서 평가     | 10  | 매우높음(10), 높음(8), 보통(5), 낮음(3)<br>* 계획서의 타당성 및 수출증대 가능성을 평가   |
|                |          | 업종 경력          | 5   | 20년이상(5), 15~20년(4), 10~15년(3), 10년이하(2)   |
|                |          | 수출에 대한 준비도     | 5   | 매우높음(5), 높음(4), 보통(3), 낮음(2)<br>* 영문카타로그 제작등 수출에 대한 준비정도   |
|                |          | 수출의지           | 10  | 매우높음(10), 높음(8), 보통(5), 낮음(3)  |
|                |          | 소 계            | 100 |  |
| 재무건전성평가        |          |                | 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은행연합회의 각 연도 중소기업신용평가표작성요령의 지수 및 등급을 적용 평가</li> <li>• 총 100점 기준으로 40점이하 획득업체는 제외</li> <li>• 총 100점 기준으로 평가한 점수를 30점 만점으로 환산</li> </ul> |

\* 수출지원위원회가 수출기업화 가능성이 큰 기업이라고 결정한 업체에 대해서는 총평가 받은 점수의 5%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 가능

## 산업자원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도 구조조정회사 지원 허용

경영상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유희자금이 기업구조조정에 활용될 수 있는 여지를 넓히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조합제도 개편안을 담은 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범위를 부도, 화의, 법정관리기업 뿐만 아니라 어음의 부도, 외상

매출금의 미회수 등으로 인한 손실이 전년 매출의 5% 이상인 기업에까지 넓혀 경영상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도 구조조정전문회사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발전법에 의해 등록된 구조조정전문회사에 대해 조합형펀드 모집때 전문회사의 출자부담을 기존 10%에서 5%로 완화, 펀드조성이 쉽도록 했다.

이와 함께 조합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구조조

중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기금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 35개 기금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약 300억원이 이들 기금을 통해 10여개 조합에 출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계열회사 등에 대한 편중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회사 자산 총액의 7%로 제한되며 대규모기업집단(30대 재벌) 소속 전문회사에 대해서는 투자허용비율을 1%로 제한했다.

## 산업자원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개설

5월 15일부터 누구나 인터넷상에서 수입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및 절차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산업자원부는 이와 관련, 홈페이지(www.mocie.go.kr)를 개설, 수입과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수입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경쟁적이고 합리적인 수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시장의 독점적 구조를 타파,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값싸

고 질 좋은 수입을 추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한 수입정보마당 사이트는 수출 및 무역거래알선에 특화된 다른 무역정보제공 사이트와는 달리, 일별·월별·분기별 통계자료는 물론 정부의 수입정책 및 관련제도 등도 쉽게 설명해 준다.

수입정보마당은 기업들이 수출 관련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인 수출전략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 중소기업 진흥공단, ISO 분야 전문인력 양성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ISO 9000(국제품질규격시스템) 인증이 사후관리 소홀로 수출을 위한 형식적인 통과절차로 전락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ISO 9000 인증을 확보한 업체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인증 획득 이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인증 관리 전문인력 부족으로 이 시스템을 품질향상에 이용하기는커녕 매년 사후관리를

위해 받아야 하는 심사조차 힘겨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ISO 9000 인증은 국제표준화 기구(ISO)에서 제정한 규격으로 객관성, 투명성, 국제적 기준으로 제3자에 의해 인증을 받는다. 이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 기업의 실패비용의 절감으로 이익이 증대되고 모든 업무의 관리 및 통제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다.

국내에서도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 1994년부터

ISO 인증을 실시한 이래 인증서 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다.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의 ISO 9000 인증획득 실적은 '97년 1,753업체에서 '98년 2,931업체, 지난해에는 5,189업체로 매년 배 가까이 인증 획득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인증을 획득하는 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ISO 9000 인증 전문인력인 심사원은 선임 심사원을 포함해 '99년에 697명에 불과해 사후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ISO 9000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사후관리 심사를 받아야 하며 3년에 한번씩 갱신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증 획득 후 전문인력을 두고 본 인증을 관리하는 중소기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체는 인증 획득 후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 심사시 시정조치에 이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체의 인증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것은 ISO 9000 인증 자체를 수출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는 중소기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 ISO 9000 인증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권고 사항이지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업체의 경우 굳이 추가 비용을 들여가며 인증 전문인력을 확보할 이유도 없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대다수의 업체가 수출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본 인증을 획득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자체 인원을 교육시켜 본 인증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고 해도 높은 이직률 때문에 실효성을 거두기가 힘든 것이 중소기업체의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 관계자는 “ISO 9000 인증은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문인력을 두고 이를 잘 이용하면 생산과정의 데이터베이스화가 가능해져 불량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체는 이같은 내부 생산성을 고려 안하고 단순히 수출 도구로 인증을 획득하다보니 사후 심사시에 관리 소홀로 인한 지도를 받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진흥공단은 ISO 9000 인증심사원 양성과정을 5월 15일(월)부터 5주동안 중소기업연수원(경기도 안산 소재)에서 개설하고 인증전문가 양성에 나섰다.

중진공은 본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ISO 분야의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인재확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용어

**ISO 9000(국제품질보증시스템)**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품질보증체제에 대한 국제규격을 칭하며 각 기업은 이 체제 구축후 제 3자인 외부인증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인증을 취득하는 제도다.

대상부문에 따라 9001부터 9003까지 3종류의 규격이 있으며 기업의 품질시스템 특성에 따라 다음의 규격으로 인증이 가능하다.

- ISO 9001 : 제품 설계 개발에서부터 제조, 설치, 서비스에 이르는 품질보증체제
- ISO 9002 : 설계, 개발 부문의 품질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품질보증체제
- ISO 9003 : 최종검사 및 시험에 관한 품질보증체제

## 중소기업청, 트리타스사업 77개대 3천명 현장파견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대학에 요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전국 77개 대학 3,000여명의 교수와 학생을 중소기업현장에 파견해 기술적인 사항은 물론 디자인과 포장, 시험분석에서 경영,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애로를 해결토록 하는 트리타스(TRITAS)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TRITAS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오늘부터 가까운 지역의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필요한 분야의 현장지도를 받을 수 있으며 소요비용은 업체당 평균 200만원씩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또 대학생의 중소기업현장실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수학생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중기청은 TRITAS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은 물론 교수와 학생의 현장실무능력 배양과 학생취업 등

에 기여하는 등 반응이 좋다고 보고, 앞으로 1교수 1중소기업지원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술지도대학,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 테크노넷 → 기술지도)에서 제공한다.

〈문의 042-481-4459〉

### 용어

TRITAS(Triangle of Technology Assistance for SMES)란=정부·대학·기업간 삼각협력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대학이 실시하고 있는 대학생 현장학습운동과 중소기업 기술지도사업의 혼합형 제도로써 중소기업은 애로 해결, 교수는 중소기업 지원을, 학생은 현장실습과 취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이다.

## 中企, 정책자금 더 싸게 쓴다

앞으로 중소기업과 창업을 준비중인 벤처기업들은 더욱 싼 금리로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아 쓸 수 있게 됐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집행되는 구조개선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소상공인 지원 자금

등 정책자금의 대출금리를 현행 8.25%에서 8.0%로 0.25%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9천여 중소기업들은 연간 145억3,000만원 정도의 금리경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계획'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인하조치에 포함되는 대상 자금은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개발기술 사업화자금 등의 구조고도화자금과 중소 벤처창업

자금, 소상공인 지원자금, 창업투자회사 대여금 등이다.

또 이미 지원된 융자금 및 새로 지원될 융자금 전체에 대해 시행시기 이후 각 해당업체가 부담하는 대출금리는 일괄 인하된다.

**전기사용을 줄입니다.**

